

醴泉 仙夢臺의 장소성과 그 의미

황 만 기**

- I. 머리말
- II. 우암의 가계와 생애
- III. 선몽대의 현관
- IV. 선몽대의 장소성과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醴泉 仙夢臺의 장소성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선몽대는 遇巖 李闕道가 그의 나이 26세 때인 1563년에 건립한 것이다. 이열도는 퇴계 이황의 從孫子로 선몽대 건립 후에 퇴계가 직접 편역을 써 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열도는 유년시절부터 퇴계의 조카인 遠巖 李窩와 퇴계의 손자인 李宗道 그리고 松巖 權好文 등과 함께 퇴계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퇴계가 지은 칠언절구 한 수는 선몽대를 마음속 수양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일반적인 정자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遊賞의 이미지와도 그 의미에 있어서 차별성을 지니게 하였다. 그리하여 명현석학과 시인묵객들로 하여금 선몽대를 찾게끔 중용하였고, 그 결과 차운시

*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학술연구대우교수 / sino5360@hanmail.net

라는 결과물이 창작되었다. 선몽대는 45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약포 정탁,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청음 김상헌, 한음 이덕형, 동원 정호선 등의 홍유석학과 송암 권호문, 청대 권상일 등 시인묵객들의 시적 소재로 각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음의 후손, 동원의 후손, 그리고 청음의 후손은 이곳에 들러 선조의 시판을 보며 조상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공간으로 재인식함으로 인해 선몽대의 장소성과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몽대가 유상치의 기능을 넘어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예천 선몽대, 우암 이열도, 퇴계 이황, 추모의 공간, 누정

I. 머리말

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에 위치한 仙夢臺는 遇巖 李闕道(1538~1591)가 그의 나이 26세 때인 1563년(명종 19)에 건립한 것이다. 이열도는 퇴계 이황의 從孫子로 선몽대 건립 후에 퇴계가 직접 편액을 써 줄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열도는 유년시절부터 퇴계의 조카인 遠巖 李窩와 퇴계의 손자인 李宗道, 그리고 松巖 權好文 등과 함께 퇴계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선몽대 앞에는 내성천이 흐르고 뒤에는 금학산이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 세워진 두 비석에는 仙臺洞天과 山河好大라는 큰 글자가 쓰여 있다. 이 글귀와 걸맞게 선몽대로 향하는 입구에는 아름답디 소나무가 즐비하게 숲을 형성하고 있어 마치 신선의 세계로 접어드는 인상을 준다. 조금 들어가다 보니 遇巖先生遺蹟碑가 보인다.¹⁾ 선몽대는 45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약포 정탁,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청음 김상헌, 한음 이덕형, 동원 정호선 등의 홍유석학과 송암 권호문, 청대 권상일 등 시인묵객들의 시적 소재로 각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음의 후손, 동원의 후손, 그리고 청음의 후손은 이곳에 들러 선조의 시판을 보며 조상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공간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인해 선몽대의 장소성과 그 의미가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몽대가 유상처의 기능을 넘어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까닭은 선몽대에 걸쳐 있는 시판이 그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II. 우암의 가계와 생애

1. 우암의 家系

1) 이 유허비는 우암선생유적보존회에서 1983년 11월에 세운 것으로 비문의 내용은 정순목 교육학박사가 지은 것이다.

퇴계의 둘째 형인 醴泉訓導 李河(1482~1544)는 태생지인 예안 은혜에서 처가이자 함양박씨 세거지인 예천 용문 금당실로 옮겨 살았다. 그의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李宏(1515~1563)은 처가인 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로 이거하였다. 이로써 그는 진성이씨 백송파 派祖가 되었다. 이굉은 字가 大容이고, 관직은 麒麟道察訪을 지냈다. 부인은 안동김씨 金遂良의 따님으로, 擘芝山 아래 백금리에서 출생하였다 김수량은 迎日鄭氏 鄭承胤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김씨를 낳았다. 김씨는 남편인 이굉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으나 38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하였다.

이굉에 대한 인물 정보가 많지 않으나 『퇴계집』과 『송암집』 등에 편린적으로 보이는 정보만으로도 이굉은 숙부인 퇴계에게 수학하며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퇴계가 이굉에게 준 시가 전하고 있어 옮겨보기로 한다.

春陰漠漠水悠悠
去國孤臣一葉舟
好待晚天晴日景
水禽多處玩芳洲

봄 하늘에 구름이 짙고 물결은 아득한데
도성 떠나는 외로운 신하 뚝단배에 오르네
늦게라도 갠 날의 좋은 경치를 얻게 되면
물새들 많이 노는 모래톱을 구경하리라²⁾

이 시는 퇴계가 1555년 2월에 도성을 떠나면서 지은 시다. 퇴계는 병 때문에 세 차례나 사장을 올리고는 배 한 척을 사서 영남으로 귀향하였다. 떠나는 날에도 上護軍에 체수되기도 하였다.³⁾ 시기는 을사사화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었다. 그런데 퇴계는 왜 이 시를 조카 李宏과 아들 李騫에게 보여주었을까? 퇴계는 宦路의 삶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다. 그래서 여정이 많이 걸리는 육로가 아닌 수로를 이용하여 재빨리 귀향하고픈 마음에 배를 사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린 것이 아닐까 한다. 숙부의 영향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굉은 이때부터 벼슬보다는 전원에서의 삶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린도찰방이라는

2) 李滉, 『退溪集』 卷2, <舟行 示宏姪騫兒>.

3) 李滉, 『退溪年譜』 卷1, 선생 55세조.

직책을 수행했으나, 마음속에는 늘 산림 지향적 삶이 지배하였다. 이런 그의 심리적 상태는 아들 이열도에게 시나브로 전해져서 훗날 선몽대를 건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우암의 삶과 활동

이열도의 본관은 眞城, 자는 靜可, 호는 遇巖이다. 증조부는 진사를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된 李埴(1463~1502)이다. 조부 李河(1482~1544)는 예안 은계리에서 태어났으며, 퇴계 이황의 仲兄이다. 이하는 함양박씨 朴華의 따님에게 장가들면서 예천 금당실에 우거하였고 만년에는 예천훈도를 지냈다. 이열도의 부친 李宏(1515~1573)은 기린도찰방을 지냈는데, 금당실에서 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로 이거하였다. 어머니는 안동 김씨는 部將 金滄良의 따님이다.

이열도의 생애에 대한 전거는 후손 李範教가 찬한 遺事와 田園 柳道獻(1835~1909)의 墓碣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열도는 1538년 白金里(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그는 15세에 四書와 六經에 통달하였고, 미묘한 말과 심오한 뜻도 술술 풀어내었는데 叔祖인 퇴계 이황이 매우 사랑하여 원대한 기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여겼다. 이열도는 13세 때인 1550년에 모친상을 당하여 人情과 禮文을 두루 갖추었고 36세 때인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여서는 한결같이 『주자가례』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열도는 어려서부터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특히 18세 때인 1555년에 溫溪 李滢의 아들이자 퇴계의 조카인 遠巖 李喬(1531~1595)와 퇴계의 손자 李宗道(1535~1602), 그리고 퇴계의 외종손자인 松巖 權好文(1532~1587)과 함께 溪上書堂에서 학문을 익혔다.⁴⁾ 이때 권호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4) 權好文, 『松巖集 別集』 <年譜>, “乙卯四月, 往拜李先生受學. 與李君美喬·士元宗道·

終日溪堂樂不歸
 於詩於禮問精微
 心衡運處分輕重
 手畫橫時悟是非
 學巧楊雄嗤載酒
 探玄康節好摳衣
 洞然歸趣雖難識
 明訓他年願莫違

돌아가지 않은 채 종일 계당에서 즐기며
 시와 예에 대해서 정미하게 질문하였네
 마음으로 운용을 헤아려 경중을 분별하고
 직접 종횡을 구분하여 시비를 깨달았네
 술 싣고 양웅에게 교묘함을 배운 일을 비웃었고
 스승 찾아 오묘함을 탐구했던 강절을 좋아했네
 귀취점을 환하게 다 알기는 어렵지만
 밝은 가르침 훗날에도 어기지 말아야지5)

송암은 溪堂에서 詩와 禮를 배움에 있어 지겨워하거나 따분해하지 않았다. 스승 퇴계로부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중과 시비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송암은 술을 싣고 와서 교묘함을 배우러 온 揚雄의 제자들을 비웃었고 현묘한 이치를 탐구하기 좋아하는 소강절을 선호하였다. 이는 교묘한 수식을 위한 학문보다는 진리 탐구를 위한 학문을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이다. 이열도의 문집이 현존하지 않아 溪上書堂에서 수학할 당시 이열도의 심리적 상태나 학문에 대한 소회가 어떠한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同學들은 퇴계의 가르침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 했을 것이다. 송암의 언급에서 보듯이 이때에는 과거를 통한 관직생활보다는 산림에서 학문하는 爲己之學의 처세가 우세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로부터 8년 뒤에 이열도가 선몽대를 건립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선몽대 축조 소식을 접한 퇴계는 직접 편액 글씨를 써 주고 축하 시도 남기게 된다. 이열도가 애초부터 科擧를 위한 공부를 지향했다면 퇴계의 행동은 달랐을 것이고, 선몽대라는 정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열도는 1563년에 선몽대를 건립하고 나서 한동안 처사적 삶을 살다가 13년 뒤인 1576년(선조9)에 대과 별시에 응시하여 丙科 제1인으로 급제한다. 유년시절 함께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송암 권호문이 지향했던 산림처사형의 삶이 아닌 환로의 길로 전향하게 된 것

靜可闕道, 同學.”

5) 權好文, 『松巖集』 卷1, <是日受學有感>.

이다. 그의 대과 급제는 진성이씨 문과급제자 59명 중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성과이다.⁶⁾ 이후 이열도는 전형적인 환로의 대표적 코스인 槐院(승문원)의 副正字에 보임되었다가 1581년에 博士로 친직되었다. 이듬해인 1582년에는 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에 禮曹正郎으로 옮겼다. 1583년에 銀溪察訪에 제수되었다. 이열도의 행장에는 은계찰방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荷谷 許篈(1551~1588)의 문집인 『허봉집』에는 허봉이 1585년 4월 11일에 이열도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해 볼 때 實職한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이 죽어 逢原마저 이미 지하 사람이 되었기에 그를 생각하면 무척 애통합니다. 골치 아픈 別破陣의 金壽源이란 자는 서울에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지금 변방에서 와서 아침저녁으로 들른 지가 1년이 지났으니 그의 깊은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계역에서 그를 돌봐줄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삼가 바라건대 규례를 깨트려 도와주심이 어떠한지요? 분수 밖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찌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글을 올립니다. 을유년 4월 11일⁷⁾

허봉은 이열도의 再從弟인 李安道(1541~1584, 字 逢原)의 죽음에 애통한 심정을 전하면서, 이열도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別破陣의 金壽源이란 자에 대한 청탁임을 밝히고 있다. 허봉과 김수원은 서울에서 서로 잘 알던 사이라서 특별히 은계 찰방 이열도에게 김수원의 扶護를 당부하였다. 구체적인 연유는 알 수 없으나 김수원이 은계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역의 책임자인 이열도에게 잘 무마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짐작컨대 이열도는 허봉의 이 청탁에 대해서 거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열도는 1585년에 은계찰방에서 高靈縣監으로 제수되었고, 고려

6) 이열도 이전의 문과 급제자로는 松齋 李堦(1469~1517), 溫溪 李灌(1496~1550), 退溪 李滉(1501~1570), 鶴川 李逢春(1542~1625)이 있다.

7) 『荷谷先生雜著補遺』〈與銀溪察訪靜可書〉, “故舊星散, 逢原已作泉下人, 念之骨痛. 因煩別破陣金壽源者, 洛下相厚之人, 今來塞外, 朝夕過從, 以至經冬, 情厚可想. 驛路如有斗頓之事, 伏乞破例發光何如? 非恃分, 何敢發此言? 伏惟尊照, 謹拜狀. 乙酉四月十一日.”

에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平安都事로 승차하였다. 1587년에 형조정랑이 되어 조정에 돌아왔고, 연이어 金山郡守와 江原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한편 1590년에 慶山郡에서 弊局을 알러오기에, 大臣들이 장계를 올려 특별히 慶山縣令에 差定하였다. 정무를 본 지 몇 달 되지 않아 학업을 일으키고 근본에 힘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니 1년 만에 교화가 행해졌고, 道臣이 장계까지 올렸다. 이열도가 경산현령으로 있을 때 학봉 김성일이 일본에 통신사로 가게 되게 되었는데, 이때 경산을 지나면서 지은 시가 있어 옮겨보기로 한다.

章山館裏一樽酒	경산의 객관에서 한 동이 술을 마시다가
啼鳥數聲驚送春	몇 마리 새 소리에 봄이 감을 놀라네
唱盡驪駒天欲暮	이별가 부르고 나자 해가 저물려 하는데
滄波萬里獨歸人	푸른 바다 만 리 길을 나 홀로 가는구나 ⁸⁾

1구의 章山은 慶山의 古名이다. 3구의 驪駒는 逸詩의 편명으로 손님이 떠나려 할 때 정을 표하는 이별가이다. 그 가사만 『예기』 「大戴禮」에 전한다.⁹⁾ 김성일은 경인년(1590) 3월 5일에 사은 숙배를 하고, 조령을 넘어 문경을 지나고 안동과 신령을 거쳐 경산을 경유하게 되었다. 음력 3월 늦봄에 안동과 예천의 벗들이 경산에서 전별을 위한 향우회를 가졌다. 이열도는 고향의 동갑내기 친구가 멀리 타국으로 사신을 감에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달성군수로 와 있던 예천 출신인 權文海(1534~1591)와 함께 이별주를 권하고 이별가까지 불러주며 친구간의 우정을 나누었다. 이때 초간 권문해는 아래의 시를 읊조려 전별하였다.

乳燕鳴鳩霽景新	어미 제비 우는 비둘기 비 갠 경치 새롭고
---------	-------------------------

8) 金誠一, 『鶴峯集』 卷2, <二十九日發慶山, 達城伯權灝元暨主倅李靜可, 會餞>.
 9) “검은 망아지 문에 있으니, 마부들이 갖추어져 있도다. 검은 망아지 길에 있으니, 마부들이 멩에를 엮는도다.[驪駒在門 僕夫俱存 驪駒在路 僕夫在路]” 하였다. 《漢書 卷88 王式傳》 한국고전번역원 각주 재인용.

離亭日晚惜殘春
秋來會合應非遠
莫歎今分去住人

해 저무는 정자에서 가는 봄을 아쉬워하네
가을이 되면 만날 날이 응당 멀지 않으리니
오늘 그대와 우리가 이별함을 탄식하지 마시게¹⁰⁾

권문해는 가을이 되면 또다시 만날 때가 있을 것이므로 친구끼리 서로 이별하게 됨을 너무 슬퍼하지 말자는 투로 타국으로 가는 김성일을 위로하고 있다. 시문이 남아 있지 않아 이열도의 생각을 알 수 없으나 추측건대 권문해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이날이 이생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이열도와 권문해는 이듬해인 1591년에 죽음을 맞게 되고, 김성일은 1591년 2월에 통신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전시상황인 1593년에 진주성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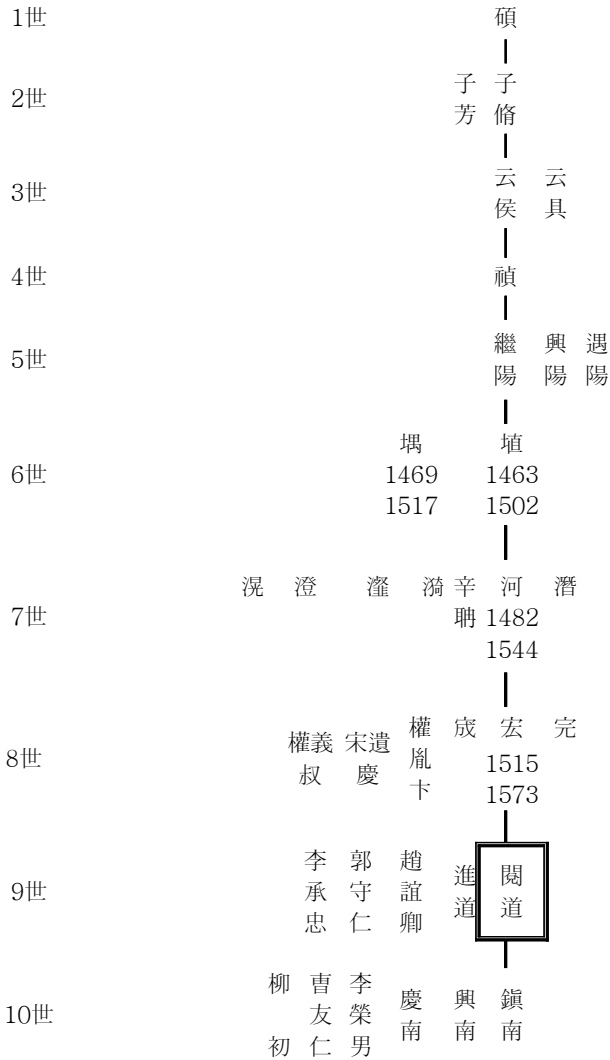
이열도는 경산현령 재임시에 하루는 경상도관찰사가 만나기를 요구하여 가보니 책 제목을 붙여 달라고 함에 큰 소리로 말하기를,

말씀하실 것은 오직 공적인 일이어야 하거늘 어찌 부질없이 책 제목 붙이는 것으로써 번거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고서는 곧장 벼슬을 버리고 선몽대로 돌아와 학문을 연마하거나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1591년 8월에 병으로 운명하니, 향년 54세였다.

부인 英陽南氏는 牧使 希奭의 딸이고 女士의 행실이 있었다. 남편보다 한 달 뒤에 운명하여 同穴에 장사지냈다. 3남 4녀를 두었다. 장남 鎭南은 참봉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 홍의장군 광재우를 따라 擧義하였다. 차남 興南은 啓功郎이고, 삼남 慶南은 진사이다. 딸들은 南興達·琴友聖·李榮男·曹友仁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10) 權文海, 『草澗集』 卷1, <慶山館 送金士純(誠一) 使日本>.



III. 선몽대의 현판

선몽대에는 모두 10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원래는 편액을 포함하여 모두 9개가 걸려 있었다. 이들 현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수집하여 보존한다는 취지로 가져가고, 기존의 글씨 그대로 새롭게 판각해서 게판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산 정약용이 부친 정재원을 모시고 선몽대에 와서 읊은 시인데, 현재 서예가로 활동중인 草丁 權昌輪의 글씨체로 게판하였다. 각 현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퇴계 이황의 선몽대 편액이 걸려 있다. 이 글씨는 ‘仙’자가 다른 두 글자보다 위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는 신선이 높은 곳에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 특이한 것은 趙穆의 서당인 ‘月川書堂’의 편액 역시 퇴계가 직접 써 준 글씨인데, 이 편액의 첫글자인 ‘月’자가 약간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렇게 쓴 것은 ‘月’은 하늘에 있고 ‘川’은 지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럴듯하게 생각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퇴계 친필인 선몽대 편액



퇴계 친필인 월천서당 편액

편액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시판이다. 그리고 정탁, 김성일, 류성룡이 지은 시가 한 시판에 걸려 있다. 또 한음 이덕형의 시판이 있다. 이 시판은 오래되어 신묘년 초여름에 이덕형의 9세손인 李宜翼(1794~?)이 용궁현감으로 왔을 때 새롭게 게판한 것이다. 이의익도 시 한 수를 지어 丁好善(字 士優)의 6세손인 鄭載裕의 시와 함께 게판하였는데,

<謹次仙夢臺韻>이다. 또 淸陰 金尙憲의 시판이 있는데, 이것은 김상헌의 7대손인 金學淳이 안동부사로 왔을 때 이곳에 들러 걸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충주최씨 崔鎭邦이 차운한 시판이 있는데, 이것은 최진방이 안동교수로 왔을 때 지은 것이다.

비록 시판에는 걸려 있지 않으나 백담 구봉령, 송암 권호문, 금역당 배용길, 학사 김응조, 계산 김성탁 등 수많은 홍유석학과 시인묵객이 선몽대를 소재로 시를 읊조렸다. 이들 시들은 1975년에 제작된 『仙夢臺志』(乾)에 들어있다. 여기에는 모두 500여 수의 시들이 수록되어 선몽대가 건립 이후 끊임없이 유명세를 지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퇴계라는 大賢의 시에 차운하려는 후학들의 추모정신이 선몽대로 발길을 옮기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심원록이라는 이름으로 『仙夢臺志』(坤)에 실려 있다.

IV. 선몽대의 장소성과 의미

1. 선몽대의 건립

선몽대는 遇巖 李闕道(1538~1591)가 그의 나이 26세 때인 1563년(명종19)에 건립하였다. 선몽대의 건립 연도에 대해서는 柳道源이 찬한 묘갈명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仙夢臺는 퇴도선생이 꿈에서조차 그리워하던 곳이다. 공의 선친인 찰방공[李宏]이 일찍이 留意한 곳인데 공이 선친의 뜻을 계승하여 건립하였다. 퇴도선생이 직접 선몽대 세 글자를 쓰고 또 詩와 序文도 주었으니 嘉靖 癸亥年(1563)이다.¹¹⁾

『퇴계집』에 실려있는 시를 옮겨보기로 한다. 제목은 「寄題仙夢臺」이다.

11) 柳道獻, 『田園集』 권5, <遇巖李公墓碣銘>, “仙夢臺, 卽退陶先生夢想之地也. 先察訪公, 嘗留意而公繼志肯構. 先生手書仙夢臺三字, 又贈之以詩與序, 寔是嘉靖癸亥也.”

松老高臺插翠虛	노송 아래 높은 대는 허공에 꽂혀 있고
白沙青壁畫難如	흰 모래 푸른 절벽 그려내기 어렵구나
吾今夜夜凭仙夢	나는 요즘 밤마다 선몽대에 기대는 꿈을 꾸니
莫恨前時趁賞疎	접때 가서 못 본 것을 한탄하지 않으리라 ¹²⁾

선몽대의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 상상해서 지은 퇴계의 걸작이다. 퇴계는 이 시 서문에서 “우암의 경치를 장애가 많아서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도 꿈속에서 상상할 따름이다. 오로지 절구 한 수를 지어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대를 명명한다.”¹³⁾라고 하였다.

다만, 처음에는 瓦家가 아닌 草屋으로 지어졌다가 선친 사후에 뜻을 받들어 대를 축조하고 누대를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열도가 퇴계의 시에 차운한 시 3수 중 첫 번째 시에서 그 단서가 포착된다.

先人抵法久歸虛	선친이 끼친 법을 오래도록 실천하지 못하다가
遺志猶存乃如意	남긴 뜻 여전히 생각나 이에 뜻대로 하였네
數架簷楹今得就	오늘에야 두어 개 서까래를 처마에 없으니
棲遲非但世情疎	지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속세 생각 멀어지네

이열도의 부친 李宏(1515~1573)은 살아생전에 이곳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정자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생전에는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사후에야 비로소 건립하게 된 것으로, 선몽대 건립에 대한 취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드디어 정자를 완성하니 편안히 쉬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퇴계의 언급처럼 속세의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신선의 세계가 구축되게 된 것이다. 이어지는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小亭高架鏡中虛	높이 세운 작은 정자는 강물 속에 어리고
遠浦長天望豁如	먼 포구와 드넓은 하늘은 탁 트인 듯하네

12) 李滉, 『退溪集 外集』 卷1, <寄題仙夢臺>.

13) 李滉, 『退溪集 外集』 卷1, <寄題仙夢臺>, “遇巖之勝, 多魔不遇, 至今夢想不已. 聊以一絕寄意, 因以名臺云.”

孤鷺落霞呈百態
晚風飛雨又疎疎

외론 따오기 저녁노을 온갖 자태 빗어내고
저녁 바람 날리는 비가 더욱 성글어졌네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어느 가을날 저녁녘이다. 특히 2구와 3구는 唐나라 王勃의 「滕王閣序」에 “저녁노을은 짙은 따오기와 나란히 떠서 날고, 가을 강물은 드넓은 하늘과 같은 빛이로다.[落霞與孤鷺齊飛, 秋水共長天一色.]”라는 구절을 연상케 할 만큼 시어 포치와 묘사가 매우 빼어나다고 할 수 있다.

선몽대 주변의 자연환경과 승경에 대해서는 이열도의 사위인 頤齋 曹友仁(1561~1625)의 기문에 그 단서에 엿보인다.

군의 관아 남쪽 10리 즈음에 태백산에서부터 수백 리를 이어와 잔잔히 퍼져 밑 바다까지 맑은 강이 있다. 강의 남쪽 기슭에 십여 장 뒹직한 암석이 불쑥 솟아 있고 그 위에 층대가 있으니 장인께서 쌓고 꾸민 것이다. 대의 모습은 넓고 시원하여 높다랗게 반공에 솟아 곧바로 동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골짜기가 솟아 있고, 강이 그 골짜기 사이를 뚫고 나와 대 아래를 휘감아 돌아 깊은 못을 만들었다. 못으로부터 서쪽 하류로는 강폭이 더욱 넓어져서 별빛과 달빛을 머금은 채 아득히 넘실대니, 올라서 바라보면 세상을 멀리 벗어나 선경에 있는 듯하다. 이 대는 본래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퇴계선생이 손수 ‘선몽대’ 세 글자를 써서 대의 편액으로 걸도록 보내 오셨다. 그리고 절구 한 수를 지어 평소 꿈꾸고 상상하신 뜻을 서술하여 승경의 경개를 묘사하였는데, 마치 또렷이 직접 눈으로 보신 듯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기이한가?¹⁴⁾

선몽대의 중건과정에 대해서는 1994년에 간행한 『仙夢臺略志』에 그 개략이 언급되어 있어 참조된다. 이열도에 의해서 건립된 선몽대는 1623년 물난리에 희생되었다. 이때 다행히 보관하던 책들은 본집으로

14) 曹友仁, 『頤齋集』卷2, <仙夢臺記>, “郡南十里許 有水從太白來 源委數百里 演漾平鋪 徹底清瀉 由水南涯 有石陡起可十餘丈 上有層臺 外舅氏所築而增飾之者 爲臺遶廓爽豁 高出半空 直矚東北 峽勢東立 水穿峽中出 洄洑臺下 滄爲深潭 自潭而西 水勢益闊 涵泳星月 浩渺瀾漫 登而望之 令人有遺世出塵之想 臺舊無號 退溪子手寫仙夢臺三字 寄爲臺扁 仍成一絕 以敘平日夢想之意 摸寫勝槩 瞭然若所嘗目擊者 何其異哉?”

가져갔다고 한다. 또 1671년(현종13)에 한 차례의 중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일을 주관한 사람은 이열도의 현손인 李址이다.

그리고 중수 연도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으나, 金聖鐸(1684~1747)의 문집인 『霧山集』에 重建上梁文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730년 경에 대대적인 중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상량문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선이 누각에 살기를 좋아하니, 어찌 오랫동안 승경지를 비워 둘 수 있으랴?
 자손들이 기꺼이 누대를 지으니, 곧 옛터를 버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겠네.
 홀연히 우뚝하고, 아름답게 빛나도다.
 생각건대 遇巖선생께서는
 하늘의 신선인 赤松子의 짝이고,
 해동 朱子의 형의 손자이네.
 잠시 인간 세상에 귀양 온 것은 黃庭經을 잘못 읽은 탓이고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으나 노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 생각이었네
 栗里의 전원이 무성해지자, 成都轉運使는 琴鶴만 지닌 채 이미 돌아왔네¹⁵⁾
 풍월의 주인이 되었으니, 한 구역을 독차지하지 않을 수 있었고
 강호의 객성이 되었으니, 한평생 유유자적 늙어가려고 하였네.
 신선향이 어느 곳인가? 建昌의 丹霞와 天台의 赤城일 필요가 없네.
 승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剡川의 한 굽이¹⁶⁾와 龍門의 八節灘¹⁷⁾과 같구나.¹⁸⁾

-
- 15) 고인들이 항상 거문고와 학을 행장에 지녀서 淸高하고 廉潔함을 표시했던 데서 온 말이다. 당나라 시인 鄭谷의 <贈富平李宰> 시에 “그대는 청렴하고 또 가난하여, 거문고와 학과 가장 서로 친하구려.[夫君淸且貧 琴鶴最相親]”라고 하였다. 특히 송나라 趙抃은 成都轉運使로 부임할 때 몸에 딸린 것이라곤 오직 거문고와 학뿐이었다고 한다. 한국고전번역원 각주 재인용
- 16) 唐 玄宗 때 秘書監을 지낸 賀知章이 조정에서 벼슬하다가 늙어서 고향인 吳中으로 돌아올 때 玄宗이 경호의 剡川 한 굽이[一曲]를 하사하였다. 『新唐書』 卷196 賀知章列傳 한국고전번역원 각주 재인용
- 17) 龍門의 八節灘: 곧 龍門에 있는 八節石灘을 말하는데, 일찍이 이곳에 암초가 많아서 배나 뗏목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으레 많이 파손되었고 뱃사공들의 고생 또한 막심하였다. 그런데 백거이가 香山에 石樓를 짓고 그 지방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이 팔절단을 開鑿하여 배가 순조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이 많은 노인들과 九老會를 結社하고서 풍류를 즐겼으므로, 사람들이 九老圖를 그려서 그를 길이 사모하였다. 『唐書』 卷119, 『百樂天詩集』 卷17 開龍門八節石灘 한국고전번역원 각주 재인용

선몽대는 이후 1923년에 15대손인 李麟熙의 의해 중수되었다. 선몽대를 12칸으로 넓혔으며, 이외에 10칸의 주사를 신축하였고, 鶴尋臺 4칸, 訪鶴亭 4칸을 지었으나 이들은 비바람에 넘어져서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몽대는 1967년에 다시 중수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일은 16대손인 李重華가 주관하였다. 이때 나무로 된 기둥을 돌로 改替하였고 난간도 개조하였다. 그리고 주사 10칸을 고쳐 세웠고 송정 4칸도 신축하였다.

2. 장소의 재인식과 의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선몽대에는 漢陰 李德馨, 東園 丁好善, 淸陰 金尙憲의 시판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이 훗날 이곳에 들러 선조에 대한 추모의 상념에 잠긴다.

먼저 漢陰의 시판을 분석하기로 한다.

山橫蒼壁地凌虛
水釣林耕儘自如
未到此臺名已好
賞情翻動世情疎

산은 푸른 절벽에 빗겨 있고 지세는 허공에 떠 있으며
냇시하고 농사짓기를 진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이 대에 이르기 전에 명성은 이미 아름다워
감상하고픈 마음 들 때면 속세 생각 멀어지네¹⁹⁾

선몽대에 계관되어 있는 이 시판은 漢陰 李德馨(1561~1613)의 9대손인 李宜翼(1794~?)이 신묘년(1831) 4월에 다시 건 것이다.²⁰⁾ 이덕형

18) 金聖鐸, 『霧山集』 卷13, <仙夢臺上梁文>, “神仙好樓居, 豈合久曠於勝地? 子孫肯堂構, 乃見不棄於前基. 倏爾崢嶸, 美哉輪奐! 緬惟遇巖先生, 天上赤松之仙侶, 海東紫陽之兄孫. 暫謫人寰, 蓋緣黃庭誤讀, 早騰雲路, 未及白頭思歸. 栗里之田園欲蕪, 成都之琴鶴已返, 作主人於風月, 可無一區之專盟, 擬客星於江湖, 逝將百年之自適. 仙鄉何處, 不必建昌丹霞天台赤城, 勝境非遙, 有若剡川一曲龍門八節.”

19) 李德馨, 『漢陰文稿』 卷1, <仙夢臺 次退溪先生韻>.

20) 기존의 시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 새롭게 모각한 시판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은 1601년 2월에 충청·전라·경상·강원 4도의 도체찰사에 제수되었는데,²¹⁾ 이때 지역 민심과 군정을 살피기 위해 이곳에 잠시 들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1구에서는 선몽대가 위치한 지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2구에서는 선경지인 이곳 선몽대에서는 재차 일어날 수 있는 전란에 대비하는 군사훈련도 전란을 겪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피야 하는 위정자의 책무를 신경쓰지 않고 한가로이 물가에서 낚시하고 밭에서 경작하는 전원의 여유로운 삶을 묘사하고 있다. 이덕형은 선몽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선몽대가 仙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3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古文眞寶前集』의 馬存이 지은 「燕思亭」 제5구의 ‘未到亭中名已好’의 표현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궁현감 이의익은 9대조 이덕형의 이 시에 차운하여 시 한 수를 남기게 된다.

瓊雲璇月映臺虛
遺墨新劄畫裏如
每欲登臨仙夢做
主人待我捲簾疎

옥 구름과 옥 달이 텅 빈 대를 비추는데
선조의 유묵을 새로 새기니 그림 같구나
매양 이 대에 올라 신선 꿈을 꿀라치면
주인이 성근 주렴을 걷고 나를 기다리네

이의익은 2구에서 이덕형의 유묵을 새로 새겨 계관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의익에게 있어서 선몽대는 유상의 공간을 넘어서 추념의 공간으로 변화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청음 김상헌의 시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沙白川明澹若虛
玉山瓊圃較何如
仙區萬里應難到
往來斯亭且莫疎

모래 밝고 냇물 맑아 담박하기가 청허하니
옥으로 된 산과 정원에 비교하여 어떠한가
구만리 선계는 응당 이르기 어려우니
이 정자에 왕래함을 소홀하지 말게나

청음은 병자호란 당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실천하며 후금에 불굴의 투지를 보인 화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 선몽대 시에는 그런

21) 李德馨, 『漢陰文稿』附錄 卷2, <年譜> 41세조 참조.

색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1구는 선몽대 주변 경관을 담박하게 스케치하고 있으며, 이 경치가 신선들이 사는 하늘의 낭원 같은 신선 세계에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늘의 선계는 도달하기 어려우니 인간 세상의 선계인 이곳 선몽대를 즐겨 찾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청음이 안동에 체류한 시기는 두 차례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1618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해야 한다는 복인 정권의 혼정에 모든 것을 단념하고 어머니 李夫人을 모시고 풍산으로 낙향하여 1621년 봄 양주 석실로 돌아가기까지 3년간 체류하였다. 이때 체류 장소는 청원루에 거거하면서 삼구정이나 주변의 경치나 인물들을 탐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두 번째는 병자호란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에 인조가 城下之盟을 맺고 남한산성을 나갈 때 청음은 병든 몸으로 하직 인사를 고하고는 마침내 정축년(1637) 2월 7일 安東 豐山으로 낙향하여 이듬해 서미동 木石居로 은거해 있다가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병사를 요청함에 이를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1640년 11월 심양으로 압송되기 전까지 3년 9개월간의 생활이다.²²⁾ 청음이 선몽대를 찾은 것은 아마도 전자에 해당하는 시기인 듯하다. 청원루와 이곳 선몽대와는 2송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으니 3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선몽대에 들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청음의 7대손 金學淳(1767~1845)은 안동부사 재임시인 1820년에 청음 김상헌이 우거하였던 안동 서미동 입구의 큰 바위에 ‘海東首陽 山南 栗里’라는 큰 글씨를 새겨 이곳이 우리나라의 수양산이자 영남의 울리라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 청음의 선몽대 시가 이곳 선몽대에 걸려 있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는 초서체로 새겨서 선몽대에 걸고서 7대조 청음 김상헌을 추모하게 되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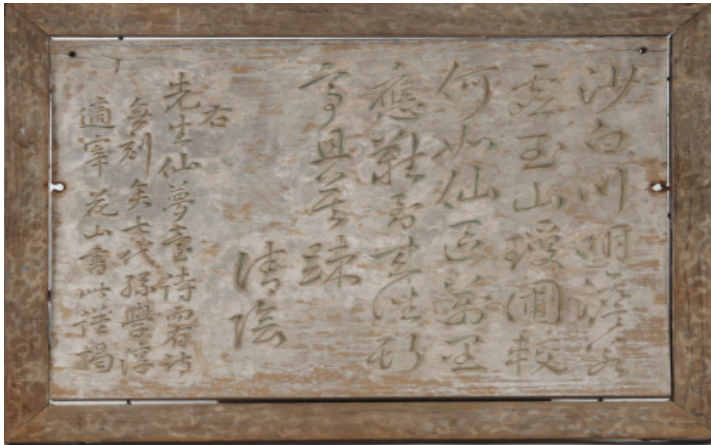
22) 황만기, 「안동체류기에 있어서 청음 김상헌의 활동과 문학」, 『국학연구』 20집, 2012, 498쪽.

23) 청음의 선몽대 시는 『청음집』에 실려 있지 않다. 이 무렵 김학순은 또 영남의 대표적 누각인 영호루에 올라 ‘洛東上流 嶺左名樓’ 커다란 글씨로 새겨서 게관하였는데, 현존하고 있다.

한편 茶山 丁若鏞(1762~1836)은 정약용은 그의 나이 19세인 1780년에 부친 丁載遠과 함께 선몽대에 올랐다. 당시 정재원은 예천군수로 있었다. 이때 선몽대 주인이 정재원의 6대조 丁好善(1571~1633, 字 士優, 號 東園)이 이열도 등과 함께 선몽대에서 읊은 절구 2수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었다. 종이의 절반은 종이 뜯어 보기에 흥하였다. 그리하여 아들 정약용으로 하여금 다른 종이에 옮겨 적고 작은 목판에 판각하게 하고선 주인에게 계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호선이 선몽대 주인에게 준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一水瑤臺寶鑑虛
主人襟抱淡相如
登臨兩日同仙夢
千尺紅塵念已疏

누대 앞의 물줄기는 맑은 거울 텅 비었고
주인의 마음은 담박하기가 이와 같다네
이틀 동안 대에 올라 신선처럼 노니니
세상의 온갖 잡념이 이미 사라졌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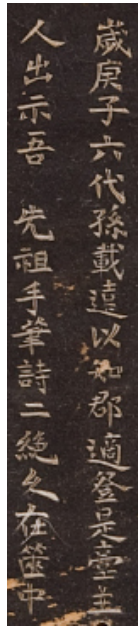


김학순이 새겨서 계판한 청음 김상현의 선몽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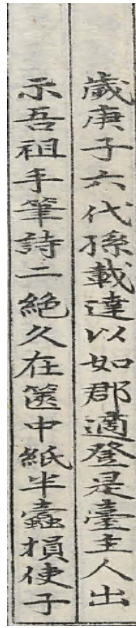
정호선은 1620년 겨울에 강원감사에 제수되었다가 1622년에 봄에 병

24) 丁好善, 『東園遺稿』 卷1, <敬次壁上韻 拜呈仙夢臺主人 兼示席上>.

으로 돌아왔다. 이때 지은 시로 여겨진다.²⁵⁾ 1,2구에서 시인은 맑게 흐르는 강물을 보고 이열도의 매우 깨끗하고 담박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다. 시인은 이틀간 이곳 선몽대에 노닐면서 잡다한 공무와 복잡한 세상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 시의 원판은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고, 현재 선몽대에는 모각본이 걸려 있다. 또 1975년에 간행된 『仙夢臺志』(乾)에는 이 시편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글자의 오류가 발견된다. 다산 정약용의 부친 이름이 載遠인데 載達로 잘못 기재하였고, 郡을 맡은 관리, 즉 郡守라는 의미의 ‘知郡’을 ‘如郡’이라 잘못 판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詩板



仙夢臺志

이때 다산은 여행 과정과 선몽대 시를 재 판각하게 되는 사연 등을

25) 李浚, 『蒼石集』 卷8, <贈吏曹判書丁公墓碣銘> 참조.

기문을 통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醴泉에서 동쪽으로 10여 리 되는 곳에 가면 한 냇가에 닿는다. 그 시내는 넘실대며 구불구불 이어져 흐르는데, 깊은 곳은 매우 푸르고 낮은 곳은 맑은 파란색이었다. 시냇가는 모두 깨끗한 모래와 흰 돌로 되어 있었으며, 바람에 흩어지는 노을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의 눈에 비쳐 들어온다. 시냇물을 따라 몇 리쯤 되는 곳에 이르르면, 깎아지른 높은 절벽이 서 있는데, 다시 그 벼랑을 따라 올라가면 한 정자를 볼 수 있으며 그 정자에는 ‘仙夢臺’라는榜이 붙어 있다. 선몽대의 좌우에는 우거진 수풀과 긴 대나무가 있는데, 시냇물에 비치는 햇빛과 돌의 색이 숲 그늘에 가리어 보일락 말락 하니, 참으로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대개 太白山 남쪽에서 시내와 산의 경치가 뛰어난 곳은 오로지 柵城(봉화)·榮川(영주)·醴泉이 최고인데, 선몽대는 유독 그 기괴한 모양 때문에 여러 군에 이름이 났다. 하루는 아버지를 따라 藥圃 鄭相國(정탁)의 遺像을 拜謁하고, 길을 바꾸어 이 누대에 올랐다. 배회하며 바라보다가 이윽고 벽 위에 여러 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의 하나는 관찰사를 지내신 나의 선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이었다. 詩板이 깨어져 글자는 갈라지고 한 쪽 구석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으나, 字句는 빠진 것이 없었다. 아버지께서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나에게 읽으라 하고서 말씀하시기를, “공이 일찍이 嶺南 관찰사로 내려왔을 때 이 누대에 오르신 것이다. 공이 지금부터 2백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나와 내가 또 이 누대에 올라와서 즐기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나더러 그 시판의 시를 옮겨 본떠서 工匠에게 翻刻하고 다시 丹青을 입혀 걸어놓게 하시고, 이윽고 나를 불러 記文을 쓰라고 하셨다.²⁶⁾

부친을 모시고 선몽대에 오른 정약용은 19세의 젊은 감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26)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3, <仙夢臺記>, “醴泉之東十餘里, 得一川焉. 泓渟而演漾, 紆餘而灑池, 深者深青, 淺者淨綠, 川邊皆明沙白石, 風烟妍媚, 照映人目. 沿流至數里, 有峭壁削立, 緣崖而上, 得一榭焉, 榜之曰仙夢之臺. 臺左右皆茂林脩竹, 澗溪石色, 隱約蔽虧, 洵異境也. 蓋自太白山而南, 溪山之勝, 唯奈城·榮川·醴泉爲最, 而仙夢特以奇瓌名數郡. 一日從家大人行, 既祇謁于藥圃鄭相國之遺像, 轉而至是臺, 徘徊瞻眺, 既而見壁上諸詩, 其一卽吾祖觀察公所嘗題也. 板壞字裂, 偏旁或缺, 而字句無闕. 家君手拂塵煤, 令余讀之曰: ‘公嘗奉使嶺南, 登此臺矣. 公之距今且二百有餘年, 吾與若又登臨爲樂, 豈不奇哉?’ 命余移摸, 付工翻刻, 易其繪采而懸之, 既而召余而記之.”

中天樓閣枕高丘
 杯酒登臨散客愁
 山雨著花紅滴瀝
 溪風入檜碧颼颼
 使臣冠蓋悲陳跡
 丞相衣巾憶舊游
 丹竈無煙仙夢冷
 水雲今古自悠悠

높은 산언덕에 기대어 허공에 솟은 누각
 술병 들고 올라보니 객의 시름 사라지네
 산중 비가 붉은 꽃에 닿아 뚝뚝 떨어지고
 냇가 바람이 푸른 소나무로 술술 불어오네
 왕명을 띤 행차에 예전 자취가 서글프고
 감사로서의 의관에 예전 유람이 생각나네
 단약 화로엔 연기 없어 신선의 꿈 싸늘한데
 강물과 구름은 예나 지금이나 절로 한가롭네27)

1,2구는 허공에 솟은 듯한 선몽대에 오르니 여행객으로서 시름이 한 순간에 녹아내림을 직서하였다. 3,4구는 주변의 경치를 노래한 것으로, 특히 山雨와 溪風, 著花와 入檜, 紅과 碧, 滴瀝과 颼颼의 대구가 일품이다. 5구 뒤에는 “7대조 監司公께서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이곳에 오셨는데 벽상의 시가 있고 별도로 記文이 있다.”는 간주가 있어, 정호선이 강원감사로 부임하였을 때 선몽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산은 당시의 상황에 눈물이 흐른다. 왜냐하면 유람객으로서 선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빈민구제를 구제하고 풍속을 교화하라는 위정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곳에 올랐기 때문이다. 7,8구에서는 정자의 편액과는 걸맞지 않게 단약을 제조하는 신선이 없지만, 강물과 구름은 예나 지금이나 한가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仙境의 분위기를 도출해 내고 슬회하고 있다.

이 무렵 용궁현감으로 왔던 丁載裕 역시 그의 6대조의 시판을 보고 선조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작동하게 된다.

俗人到此自靈虛
 夢一場中羽化如
 退老先題吾祖和
 風流從古不曾疎

속인이 이곳에 오면 신선 세계로 여겨
 한바탕 꿈과 같이 신선이 된 듯하리라
 퇴도가 먼저 짓고 우리 선조가 화운하여
 풍류는 예부터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네

27) 丁若鋪, 『與猶堂全書』 卷1, <陪家君登仙夢臺>.

퇴계가 지은 칠언절구 한 수는 선몽대를 마음을 수양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일반적인 정자와는 다른 신선의 이미지를 낳게 하였고, 遊賞의 이미지와도 그 의미에 있어서 차별성을 지니게 하였다. 그리하여 명현석학과 시인묵객들로 하여금 선몽대를 찾게끔 증용하였고, 그 결과 차운시라는 결과물이 생산되게 되었다. 정재유는 3구와 4구에서 先祖인 東園 丁好善이 퇴계가 지은 시에 차운하였고 그러한 시인으로서의 풍류가 지금까지 지속성을 지니면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선몽대라는 장소가 조상을 추모하는 齋舍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V. 맺음말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에는 이황의 종손자이자 문하생인 이열도가 창건한 선몽대가 있다. 백사장이 곱고 송림이 울창하여 자연경관이 빼어나지만, 무엇보다 이황이 친필로 선몽대라 쓰고 선몽대시를 남겨 더욱 유명해졌다. 선몽대는 예로부터 예천을 거쳐 안동으로 향하던 저명한 문인, 학자들이 반드시 들를 정도로 자연경관과 역사경관을 두루 갖춘 장소였다. 선몽대의 장소성은 퇴계 이후 여러 명현들의 시를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선경이 우세한 곳에 지어진 선몽대는 건립자인 이열도가 산수 자연을 벗 삼아 경치를 완상할 목적으로 건립하였다. 이열도는 26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자를 경영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자를 건립하는 형태는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장수지소를 목적으로 짓거나 노년에 강학지소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통례이다. 선몽대는 조선후기에 와서 板上 詩의 후손들에 의해서 추모시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 건립 초기의 유상의 공간 개념을 넘어 추모의 공간으로 재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관상 시문이 중매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權文海, 『草澗集』
權好文, 『松巖集』
金誠一, 『鶴峯集』
金聖鐸, 『霽山集』
李德馨, 『漢陰文稿』
李峻, 『蒼石集』
李況, 『退溪年譜』
李況, 『退溪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丁好善, 『東園遺稿』
曹友仁, 『頤齋集』
許筠, 『荷谷先生雜著補遺』
황만기, 「안동체류기에 있어서 청음 감상헌의 활동과 문학」, 『국학연구』 20집,
2012, 498쪽.

The place and meaning of Seonmongdae

Hwang, Man-ki*

scenic views of Yecheon(醴泉), were examined. Seonmongdae was built in 1563 when Wuam(遇巖) Lee Yeol-do(李閱道) was 26 years old. Lee Yeol-do was Toegye Lee Hwang's brother's grandson, and was loved by Toegye so much that Toegye even wrote the tablet of Seonmongdae himself after its construction. Lee Yeol-do studied under Toegye's instruction with Toegye's nephew named Wonam(遠巖) Lee Kyo(李審), Toegye's grandson named Lee Jong-do(李宗道), and Songam(松巖) Kwon Ho-mun(權好文), etc. since his childhood. One phrase from the seven-Chinese character-quatrain written by Toegye created a new image of Seonmongdae with that of a Taoist hermit,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images of general pavilions, that is, self-cultivation and academic study, and also differentiated from the images of enjoyment at leisure in its meanings. Accordingly, noted wisemen, great scholars, poets and calligraphers were encouraged to visit Seonmongdae, and as the result, Chawun poem was created. Seonmongdae had been spotlighted as the poetic material by respectable great scholars, such as Yakpo Jeong Tak, Seoae Ryu Seong-ryong, Hakbong Kim Seong-il, Cheongeum Kimsangheun, Haneum Lee Deok-hyeong, Dongwon Jeong Ho-seon, and poets and calligraphers, such as Songam Kwon Ho-mun and Cheong-dae Kwon

* Acting Professor of Academy Research, The toegye Studies Institute in Andong National University / E-mail : sino5360@hanmail.net

Sang-il for the vast reaches of time as long as 450 years. Moreover, the descendants of Haneum, Dongwon and Cheongeum rediscovered Seonmongdae as the place to commemorate the spirit of their ancestors visiting it and reading the poems written by their ancestors, so the placeness and its meaning of Seonmongdae became more specific. Here, we can see that Seonmongdae was used as a place for commemoration beyond the place for enjoyment.

keywords :

Yecheon(醴泉) Seonmongdae(仙夢臺), Wuam(遇巖) Lee Yeol-do(李閱道), Toegye(退溪) Lee Hwang(李滉), place for commemoration, pavilion

